

David Bauer 박사, 귀납적 성경 공부, 강의 18, 야고보서 1:16-21

© 2024 데이비드 바우어와 테드 힐데브란트

귀납적 성경 공부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는 Dr. David Bower입니다. 18회차
야고보서 1:16-21

입니다.

이제 야고보서 1장의 후반부로 넘어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16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그 위에 우리는 말씀을 행하고 듣는 것을 강조하면서 말씀의 실제와 자원에 따라
생활한다는 제목을 붙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2절부터 15절까지의 네
문단에 해당하는 네 개의 하위 단위가 있었던 것처럼 네 문단에 해당하는 네 개의
하위 단위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116절부터 18절까지의 단어의 성격을 강조하는
단어의 인식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는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권고로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다시 속지 마십시오. 여기서 속았다는 말은 pleno 입니다. 그런
다음 그는 계속해서 이 속임수의 세부 사항을 제시하는데, 이는 그들이 믿어서는
안 될 것, 즉 속임을 포함하는 것과 그들이 믿어야 할 것 사이의 암묵적인 대조를
포함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유혹의 근원이시라는 생각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것이
그가 13절에서 강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속지 말라는 이 언급은 실제로 유혹이
시작되는 이 오해로 거슬러 올라가며, 그것은 하나님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그들이 믿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 안에 어떤 변화가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17절과 18절을 대조하여 그들이 믿어야 할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에 관한 것이며, 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은사, 모든 좋은

은사와 모든 완전한 은사는 여기서 범위를 주목하라. 모든 것은 예외가 없는 포괄적 범위이며 모든 좋은 은사와 모든 완전한 은사는 위로부터 내려온다고 그는 말했다. 빛의 아버지에게서.

그리고 여기에서 그는 하나님의 성품이 불변하고 불변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변화로 인한 변화나 그림자가 없으시며, 빛의 아버지께서는 물론 빛을 고려하시면 선하십니다. 그리고 더 특별하게는 주시는 하나님과 선하신 하나님뿐 아니라, 더 특별하게는 그의 선하심으로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진리의 말씀으로 놓아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입니다. 이제 우리는 16절부터 27절까지의 주요 주제이자 하나의 주제가 될 미혹이라는 주제의 서두를 주목합니다. 훈계는 미혹을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실제로 속임수를 가정합니다. 여기서 금지의 형태는 그들이 속는 것을 멈춰야 한다는 것, 이미 그들 안에 있거나 적어도 잠재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속임수가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이러한 속임수는 단순한 지적 실수가 아닙니다.

그것은 죄 자체의 핵심에 있는 심각한 오류입니다. 사실 야고보는 20절에서 그의 서신 마지막 부분에서 다시 한 번 속이기 위해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 그리고 누군가 그를 다시 데려오면, 누구든지 죄인을 잘못된 길에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고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라는 것을 그에게 알리십시오. 그러면 이 속임수, 이 플레나오가 죄로 보입니다.

이러한 속임수는 유혹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없는 무능력 뒤에 숨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실, 이러한 속임수가 행하는 모든 죄의 배후에는 그것이 놓여 있습니다. 이제 이 속임수의 문제는 야고보 자신이 제공한 계시에 의해 해결됩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주로 말씀의 계시, 특히 18절에 따르면 속임수에 대한 해독제인 진리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것은 16절의 속임수와 대조되며 속임수에 대한 해독제입니다. 그러면 속임수에 대한 이유나 변명이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의 진리에 비추어 살아야 합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참된 증거가 되며, 특히 말하는 것과 행하는 것 모두를 통해 하나님의 온전한 선하심을 증거합니다. 이제 속임수의 요점은 좁은 의미에서 신학적인 것입니다. 즉, 그것은 하나님의 교리, 특히 하나님의 동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야고보는 에덴동산에서의 성경적 증언의 관점에서 볼 때 그랬듯이, 이러한 불확실성이나 의심, 즉 하나님의 동기가 모든 죄의 배후에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선을 의도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선만을 의도하셨다는 이 뿌리깊은 의심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창세기 3장에서 뱀의 입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정말 당신을 구하려고 하는 것이지 당신에게 좋은 일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James는 즉시 기록을 바로잡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빛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분이 빛의 아버지라는 이 사업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가리킵니다. 물론, 빛은 성경 전통에서 악에 대한 선을 가리키는 것으로 사용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가리킬 뿐만 아니라, 그분이 빛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실 때, 빛을 전달하려는 그분의 갈망, 즉 그분의 선하심을 그분의 인간 창조물에 전달하려는 그분의 갈망을 가리킵니다. 아버지께서 자녀를 낳으시듯이, 빛의 아버지께서도 빛을 만드시며, 아버지께서 자연적인 재생산으로 자신을 재생산하시듯이. 그러므로 하나님은 빛 자신을 재현하시는 빛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은 빛을 전달하십니다. 단순히 빛 그 자체가 아니라 빛을 전달하십니다. 그는 빛난다. 그분은 자신의 창조물에 빛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인간 창조물에 선함을 베푸십니다. 이제 야고보는 하나님을 빛의 아버지로 언급함으로써 하나님은 빛이시며 모든 빛의 근원이심을 나타냅니다. 그분은 모든 선의 근원이십니다.

물론 이것은 창세기 1장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실제로 구약 전체에 걸쳐 빛은 선하고 어두움은 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악한 어둠을 다스리시는 선의 전형이시며, 빛으로서의 그분의 성품은 그분이 광명체, 빛의 아버지, 별, 해, 달의 창조자라는 사실에서 드러납니다. 복수형인 빛의 아버지에 주목하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빛에는 하나님의 빛의 성품이 반영되어 있는데, 이는 단순히 빛일 뿐 아니라 우리에게 빛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창조된 광명체들조차 하나님의 선하심을 적절하게 전달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변화하여 해와 달과 별의 운행 경로를 가리키며, 변하여 아마도 일식을 가리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실제로 빛의 아버지에 관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변함도 없으시고 변화로 인한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그는 빛, 해, 달, 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변화를 특징으로 하는 빛 자체를 암묵적으로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결코 하늘의 같은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변화하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의 길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것들에는 변화가 있고 그것들로 인한 그림자가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그것들은 일식, 일식의 그림자에 의해 바뀔 수 있습니다. 대조적으로,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며,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그분을 변화시키게 할 수 없습니다. 항상 좋은 선물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갈망을 외면하는 일은 조금도 없습니다.

모든 좋은 선물과 온전한 선물은 그분에게서 나옵니다. 선물을 보류하거나 제거하는 것조차 선물, 즉 더 나은 선입니다. 물론 야고보는 4:3에서 이것을 언급할 것입니다.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였기 때문이니라.

그러므로 제가 말했듯이, 선물을 보류하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아마도 신약성서의 가장 근본적인 확언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주장일 것입니다. 그분은 전적으로 우리 편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초입니다.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것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리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요 지혜로 알려진 것이니라(5-8절) 말씀, 18절부터 27절. 이제 야고보는 하나의 구체적이고 완전한 은사, 즉 진리의 말씀을 설명함으로써 모든 선하고 완전한 은사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여기에는 전문화가 있습니다. 모든 좋은 은사와 모든 완전한 은사. 그건 그렇고, 모든 완전한 선물의 사업, 여기에서 dosis는 주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여기 도레마는 선물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선물 자체뿐만 아니라 주는 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당신은 일반적인 것에서 특별한 것으로의 움직임을 알아차립니다.

모든 좋은 은사와 모든 완전한 은사는 위로부터 옵니다. 그런 다음 그는 하나님이 담당하시는 한 가지 구체적인 은사, 즉 말씀의 은사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자기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분은 특정한 선하고 온전한 은사, 즉 진리의 말씀을 계속 설명하심으로써 모든 선하고 온전한 은사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사 중에서 이것은 어떤 면에서 가장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은사는 속임수에 맞서 인류에게 그분의 가장 근본적인 필요인 진리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에 관한 계시이다. 이 선하고 온전한 은사는 모든 선하고 온전한 은사가 하나님에게서 온 것임을 우리에게 알게 해 줍니다. 이 진리의 말씀은 여기서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위한 수단으로 제시됩니다.

자기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러므로 그것은 새로운 탄생의 본질적인 원인입니다. 새로운 탄생은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사실, 말씀으로 이루어진 거듭남은 실제로 말씀 자체의 성격을 가리킵니다. 그것은 생명을 생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강력하다.

이는 말씀의 능력을 가리킨다. 그것은 진실을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실제로도 주님께서서는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가 말씀 중심적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말씀으로 형성됩니다. 그것은 말씀으로 창조되었으므로 말씀으로 형성됩니다. 이제 나는 말씀을 통한 새로운 탄생에 대한 설명에서 강조점을 지적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기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거듭남에 있어서 하나님의 의도는 여기 이 구절에서 강조됩니다.

그분은 자신의 뜻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말씀을 통한 이 새로운 탄생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임의적이지 않습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대로 하되 우리의 원대로 하는 것이니(14절)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그런데 여기서 15절에 사용된 아포쿠아오(apokuaao) 라는 단어가 반복됩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나 여기 18절에서 그분은 그 일화는 그분의 뜻에 따라 우리를 낳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같은 말씀, 낳으시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으니 말씀으로 인한 이 거듭남은 하나님의 가장 깊은 갈망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거듭남을 그토록 깊이 바라셨던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든 우리에게 해를 끼치기를 원하실 수 있겠습니까? 또한 말씀을 통한 거듭남에 대한 설명에서 두 번째 강조점은 말씀의 능력, 즉 거듭남의 과정입니다. 그분은 죄로 인한 사망에 맞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15절에서도 같은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아포쿠아오(apokua) 라는 용어가 사용되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출산 과정에서 어머니의 역할을 의미하며, 여기서는 빛의 아버지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출산 과정에서 어머니의 역할로 사용됩니다. 여기에서는 신자들의 거듭남과 15절의 죄의 탄생 사이의 근본적인 대조를 지적하기 위해 같은 단어가 다시 사용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하나님과 같아야 하고, 그분의 본성과 성품, 특히 그분의 일치와 포괄적인 성실성을 반영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여기서는 부모와 관련된 자녀의 두 가지 특성을 제시합니다. 그것이 바로 닮음이고 사랑입니다.

이제 말씀을 통한 새로운 탄생에 관한 세 번째 강조점은 새로운 탄생의 수단인 진리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은 아마도 마가복음 1장 15절에 요약된 복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간이 충족되었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십시오.

시간이 충족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십시오.

이 진리의 말씀은 아마도 복음,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왕국을 가져오시는 분으로 믿는 믿음일 것입니다. 그는 2장 1절부터 5절까지에서 이에 대해 언급할 것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내가 말했듯이, 진리의 말씀은 복음으로 해석된 율법을 포함하는 복음입니다. 거기에서는 2장 8절부터 13절까지에서 최고의 법, 1장 25절에서는 자유의 법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은 거듭남의 수단이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혹의 기초가 되고 죄와 죽음으로 이끄는 사악한 욕망인 예처하라에 대한 해독제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중심적인 힘입니다. 예처하라의 해독제입니다.

그것은 유대 신학의 틀 안에서 이러한 욕망, 이 차별되지 않은 욕망을 억제하고 그것이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서 사람이 미혹되지 않게 지켜 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지식으로 이어진다.

19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것을 알라. 이제, 거듭남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그분의 피조물 중 일종의 첫 열매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를 그분의 구속, 온 우주를 위한 그분의 구속 계획의 중심에 두는 것입니다. 우리의 새로운 탄생은 우주가 회복되고 새로워질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우리의 새로운 탄생은 우주 전체의 구원을 위한 기초입니다. 그것은 우주의 중심입니다. 그것은 우주의 구원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은 두 가지 현실, 즉 첫 열매라는 개념을 가리키는 하나님의 보편적인 구속 계획의 일부이자 핵심입니다. 우선, 우리는 그분의 첫 열매는 하나님의 유일한 소유입니다. 구약의 첫 열매는 하나님께 속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특별한 소유라는 의미에서 첫 열매는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요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 그것은 온 땅의 회복에 대한 약속을 지적합니다. 우연히도 로마서 8장 23절에 나오는 바울의 말을 생각해 보면,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며 괴로움과 절망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주복귀의 중심역할을 우리에게 맡기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해를 끼치고자 하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첫 열매의 또 다른 기능은 첫 열매가 장차 올 복에 대한 약속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는 말씀 인식에서 나아가서 두운을 용서하지만 그것이 효과가 있다면 계속해서 사용하는 것이 어떨겠습니까? 여기에서는 강요되지 않고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것을 알라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자라나는 악을 내어 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말씀을 받으라, 말씀을 받으라.

이제 그는 여기서 장군부터 시작합니다. 그는 이것을 알아두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16절에서, 다시 22절에서, 그리고 다시 26절에서 속임을 당하는 것에 반대됩니다.

속는 것과는 반대로 이것을 알아라. 그는 여기서 첫 번째 권면은 지식과 관련이 있고 이것을 알며 물론 진리의 말씀과 관련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구절은 여기 앞부분을 가리키며 3:1부터 4:12까지, 그리고 아마도 5:9와 5:12까지 가리키며 거기에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즉, 여기서 야고보는 혀에 관한 전체적인 개념을 소개합니다. 그는 모든 사람이 포괄적인 범위에 주목하도록 하라고 말합니다. 모두가 속히 듣도록 하십시오. 이제 이것은 아마도 문맥에 따라 속히 듣는 일을 의미할 것입니다. 이는 아마도 말씀을 듣는 것, 말씀을 듣는 것, 말씀을 속히 듣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18절, 21절, 22절).

22절에서 그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 또한 사람의 말을 듣기를 속히 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의 나머지 부분이 그 점을 암시합니다.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하며 성내기도 더디 하십시오. 특히 사람을 대할 때에는 더욱 그러하며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 하십시오.

모두가 속히 듣도록 하십시오. 내가 말했듯이 이것은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참된 듣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에 맞서 인간의 말을 빨리 듣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임스에 따르면,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 즉 진정한 경청을 방해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글썄요, 우선 자신의 관심사와 발전, 중요성에 대한 집착이 있습니다. 3.13부터 18까지입니다.

이 구절에 관련된 아래로부터 오는 지혜는 내가 말했듯이 3장과 4장에서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한, 분노. 이것은 즉각적인 맥락입니다.

모든 사람은 듣기는 속히 하고 성내기는 더디 하십시오. 다른 사람의 말을 진정으로 듣는 것을 방해하는 것 중 하나는 다른 사람을 향한 분노, 자신의 걱정과 자기 발전이 위협받는 것처럼 보일 때의 분노입니다. 그들은 이 내용을 여기 19절b부터 20절까지의 직접적인 문맥에서 본다고 말하지만, 그는 또한 이것을 3장, 6절부터 12절, 그리고 다시 4장 1절부터 10절까지에서도 설명합니다.

나는 여기서 진리의 말씀을 들으려는 헌신과 다른 사람의 말 사이의 관계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즉, 우리의 새로운 탄생, 즉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말로, 즉 말씀을 들음으로써 확립된다는 사실은 일반적으로 말씀을 듣는 것의 의미를 지적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것의 중요성은 인간의 말을 듣는 것의 중요성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게 만드는 또 다른 것은 판단하는 태도입니다(4:11, 12).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거나 판단하는 사람은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합니다.

그러나 만일 네가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을 행하는 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니라. 그러나 듣기는 속히 할 뿐만 아니라 말하기도 더디 합니다. 이는 속히 듣는 것과 대조됩니다.

듣기는 빠르나 말하기는 느리다. 자, 이것이 전형적인 지혜의 교훈, 즉 말하기를 더디 하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 잠언 13장 3절과 잠언 29장 20절에서 다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제가 말했듯이 그리스-로마 파라네수스의 가르침 과 함께 헬레니즘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을 두 배로 하라고 인간에게 두 개의 귀와 하나의 입을 주셨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지적한 사람은 스토아학파의 창시자인 제노였습니 다. 죄를 짓게 하는 혀는 3장과 4장에서 매우 자세히 다루어 집니다. 우리는 여기서 말하기를 더디하는 것과 관련된 이 교훈의 주요

강조점 중 몇 가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나는 그가 여기서 세 가지를 염두에 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말하기를 더디하는 것과 관련된 이 문제에는 말하는 양이 관련됩니다. 천천히 말하는 것에 관한 이 지시는 너무 많이 말하지 말고, 단어를 조금만 사용하도록 조심해야 함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여러분이 실제로 여기에서 심오한 신학적 요점을 제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통해 새로운 탄생을 경험한다는 사실이며, 이는 우리로 하여금 단어를 신성하다고 여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의 거룩함은 인간의 말의 거룩함, 곧 거룩함으로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말에는 신성한 것이 있습니다. 또는 적어도 신성한 말씀의 신성함을 반영하는 인간의 말에는 신성한 그림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을 너무 많이 해서 저속한 말을 하지 않도록 조심합니다.

자, 이것은 신약의 다른 곳에서도 발견되는 강조점입니다. 그건 그렇고, 제임스의 다른 곳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장, 2장을 보십시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이 되는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 몸도 다스릴 수 있는 온전한 사람이니라 야고보서 3장 해석을 보면 알겠지만, 여기서 그가 지적하는 것은 가르치는 일에는 반드시 단어의 사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르치는 일에 직업상의 위험이 있고, 말을 많이 하는 데는 실제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 마태복음 12장 36절의 복음 전통에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사람들이 무슨 부주의한 말을 하든지, 그들이 무슨 부주의하고 무익한 말을 하든지 이에 대하여 심문을 받을 것이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자, 말의 양에 따라 말의 양이 관련되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너무 많이 말하지 마십시오.

단어를 아껴 사용하세요. 그러나 그것은 발언의 양뿐만 아니라 발언의 심의도 가리킨다고 생각합니다. 이 지시 사항은 말하기 전에 주의 깊게 생각하고 숙고해야 함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천천히 말하십시오. 여기에는 특히 자신이 말하려는 내용과 진리의 말씀의 관계를 고려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내가 말하려는 내용은 진리의 말씀과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이 관심은 여기에서 특히 두드러지는 것 같습니다. 다음 권고에 주목하십시오. 천천히 말하십시오.

나는 이 관심이 여기서 특히 두드러진 것 같다고 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음 권면에서 계속해서 말할 때,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과 그가 3.1부터 4.12까지 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3.9와 10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말이 어떻게 진리의 말씀과 관련이 있고 그것이 진리의 말씀의 성격과 일치하는지에 대한 이 개념입니다. 다시 말해서, 진리의 말씀이 생명을 낳는 성격을 갖고 있으면서 어떻게 선을 낳게 됩니까?

우리가 하는 말은 선함과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내가 지금 하는 말은 내 마음속의 더러움에서 비롯된 것인가? 이 항의 뒷부분에서 그는 모든 더러운 것을 버리고 악이 점점 커지는 것에 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면 동기로 보면, 근원적으로 보면 내 마음속의 더러움에서 나온 것입니까?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것은 하나님의 의로 이어지거나 기여하는가? 그가 말했듯이, 인간의 진노, 인간의 진노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말하는 속도를 늦추는 것과 관련된 세 번째 생각은 이 지침이 말하기 전에 잠시 멈추는 습관을 들여 화를 터뜨리는 것을 피해야 함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노의 폭발에 관한 이러한 관심은 야고보가 여기에서 계속해서 말하기를,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할 뿐 아니라 노하기를 더디할 뿐 아니라 화를 불결하게 사용하는 데 있어 분노의 역할에 대해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냅니다. 3장과 4장에서는 혀와 혀의 파괴적인 사용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제 물론 그는 분노하기를 더디하는 다음 권고로 나아갑니다. 이는 특정한 때에 특정한 유형의 분노가 적절하다는 것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결코 화를 내지 말고 화내기를 더디 하라고 말씀하십시오.

그러나 제임스는 화를 내는 성향, 즉 빠르고 쉽게 화를 내거나 잘못된 이유로 화를 내고 화를 터뜨리는 것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는 이것을 확증하여 말하기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하였느니라. 즉, 인간의 분노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시고자 하시는 의와 온전함과 공의의 상태를 만들어 내지 못합니다.

318 화평하게 하는 자들을 위하여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이는 속이는 의로운 분개와, 하나님의 사업을 보호하거나 발전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분노와 분노의 폭발을 정당화하려는 모든 시도에 반대됩니다. 제임스는 하나님의 의로운 대의가 화를 내는 말처럼 사악하고 악의적이며 폭력적인 것에 의해 진전될 수 있다고 결코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물론 평가 적용 측면에서 이는 자기 표현, 특히 분노 표현을 특권화하는 현대 가치 체계에 반대됩니다. 이는 종종 카타르시스라는 심리학적 개념, 즉 정화 또는 정화라는 개념에 의해 강화됩니다. 표현. 그 억압은 큰 악이다. 표현은 그 자체로 가치이자 선입니다.

무엇을 표현하든,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정말 흔한 일입니다. 나는 몇 년 전 인디애나에 있는 한 교회에서 야고보서에 관해 가르쳤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이 구절의 핵심에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화를 참는 것에 대한 이 모든 것에 대해 진지하게 반대하는 한 남자가 있었는데, 화를 참는 것에 반대하여 화를 표현하는 것은 카타르시스를 주고 좋고 건전하며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기서 당신은 진짜 문제가 될 것입니다. 나중에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나는 실제로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21절에서 더 많은 권고를 합니다.

그러므로 19절과 20절에서 말씀하신 것을 근거로 그 인과를 분별하고 모든 더러운 것과 심히 자라는 악, 곧 소극과 긍정적일 내버리라 능히 너희 구원에 심긴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하십니다. 위. 그래서 그는 여기서 벗고

입는다는 말을 사용하여 부정적으로 모든 더러움을 벗습니다. 이것은 혐의 죄가 더 깊은 도덕적 문제의 표현임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는 3장에서 이 사건을 명시적으로 밝힐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여기서 이 분노 폭발 사건 뒤에 숨어 있는 모든 더러움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포괄적인 범위, 모든 불결함, 그리고 또한 연관성을 주목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이 더러움이 사람에게 대한 모든 악의적이고 파괴적인 태도, 특히 분노와 관련되어 있음을 나타냅니다.

여기서 사용된 용어는 주로 성적이거나 관능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우리는 자동적으로 불결한 측면에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주로 성적이거나 감각적인 방식으로 사용되지 않았지만 주로 화난 말과 화난 말을 일으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러움이라는 단어는 부적합, 즉 쓸모없음과 분리를 가리킵니다.

물론 이러한 더러운 일은 깨끗함이나 깨끗해진다는 개념에 반대되는 것이며 실제로는 이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것은 이단, 즉 구약의 이단의 영역에서 유래합니다. 그리고 물론, 구약의 제의 언어 측면에서 오물로부터 정결해진다는 것은 성전과 성막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봉사하기에 적합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정화와 정결의 사업은, 제사장 등을 깨끗하게 하는 일,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더러움이라는 단어는 부적합함과 하나님과의 분리를 가리킵니다. 이는 부정함이 사람을 하나님에 대한 예배,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의 공동체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킨다는 제의적 강조를 반영합니다. 그는 또한 여기에서 지나친 악이나 나머지 악을 벗어버리는 것을 언급합니다.

사실 번역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모든 악의 흔적이라는 의미로 이해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그가 여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이것을 알아 두십시오. 그분은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는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난 사람들의 삶 속에 어떤 형태로든 어느 정도의 사악함이 계속 존재하거나 적어도 계속 존재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죄가 마음에 남아 있다는 기독교 교리를 가리킨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그러한 악이 모든 더러움과 악의 모든 흔적을 완전히 제거하고 제거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이것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그것을 대신하여, 너희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온유함으로 심어진 말씀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라. 이제 여기에 스키마를 적용하는 연기가 있습니다. 신약성경 서신서에 자주 등장합니다.

교체의 원칙이 작용하고 있는데, 아마도 사람들이 침례 물에 들어갈 때 낡은 옷과 더러운 옷을 벗고 나올 때 깨끗한 새 옷을 입는 침례 관습과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사실 그는 2장 2절에서 옷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여기에서도 똑같은 단어인 오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금반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너희 모임에 들어오고,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 곧 더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 너희 모임에 들어오면

그러나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즉, 만일 그가 그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여러분의 세례에 따라 생활하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수용과 이식 사이의 긴장감을 주목합니다. 긴장감을 주목하세요.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결국, 그것이 이식된다면 그것은 당신 안에 있는 것입니다. 꼭 받을 필요는 없겠죠? 제 생각에는 이 긴장이 직설법과 명령법 사이에 관계가 있다는 인식으로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식됩니다.

즉, 그것은 자연스럽고 타고난 것이며 우리 본성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그것은 우리 영혼의 일부가 되었으며, 실제로는 우리의 필수 인물 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는 말씀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산 바 되었고 거듭났습니다. 그러나 이식되었으므로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존재하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당신은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것을 받아들이십시오. 이제 조치를 취하세요. 물론 이것은 22절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고 듣기만 하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실제로 심겨진 말씀을 온유하게 받는 것은 22절에 본질적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즉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방금 인용한 말씀의 요구 사항을 언급하는 1장 22절부터 25절까지로 이어집니다. 즉,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이것은 실제로 여기서 비디오의 다음 부분으로 넘어갈 때 잠시 휴식을 취하기에 좋은 장소입니다.

그럼 여기서 잠시 멈추고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야고보서 1장의 후반부로 넘어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16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